2007년 개정 교육과정(교육인적자원부 고시 제2007-79호)에 따른

역사 교과서 집필 기준

교육과학기술부

‘역사 교과서 집필 기준’의 의의와 주안점

가. 의의

2007년 개정 교육과정(교육인적자원부 고시 2007-79호; 2007. 2. 28)에서는 국사와 세계사 내용을 통합하여 ‘역사’ 과목으로 독립 편성하고, 고등학교 1학년 수업시수를 1시간 추가 편성하였으며, 고교 선택과목으로 ‘한국문화사’, ‘세계 역사의 이해’, ‘동아시아사’를 신설하는 등 커다란 변화가 있었다.

개정 교육과정은 이전 교육과정과 달리 내용 요소를 대강화하여 제시하였다. 또한 교과서 발행제도를 검정으로 전환하였다. 이는 교과서 개발자의 재량권을 확대하여 다양하고 창의적인 교과서를 만들어 학생들을 교육하고자 하는 시대적 요구를 반영한 결과이다. 이러한 획기적 변화는 역사 교과서의 체제, 내용, 서술 방식을 자율적이고 풍부하게 구성할 수 있는 길을 열었다는 점에서 의미심장하다. 이것은 동시에 우리 학계 및 교육계의 역량이 성장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다.

하지만 이번 개정은 그 기대만큼이나 다소 우려스러운 점도 있다. 개정 교육과정 체제 아래에서 역사적 사실 선택이나 해석이 교과서마다 큰 편차를 보일 수 있다. 물론 개정 교육과정의 취지를 살려 교과서 내용과 구성을 다방면으로 편성·집필하는 것은 교육의 다양성 측면에서 환영할 만하다. 그러나 교육 내용의 선정과 조직은 교육과정에 따를 문제지만 해석의 편차가 큰 역사적 사실을 다룰 때 적정한 기준이 필요하다. 이는 국가 수준의 학습 평가의 시행에도 필요한 조건이다.

‘역사’는 다른 과목에 비해 동일한 역사적 사실에 대해 이설도 많고 관점의 차이도 큰 편이다. ‘역사’ 과목의 특수성을 감안하더라도, 역사 해석에서 극단적인 편향성을 피하고 교과서 내용에 타당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서 일정한 범위에서 기준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또한 역사학계의 최신 연구 성과와 방향을 보여줌으로써 보다 정확하고 의미 있게 교과서를 집필할 수 있도록 조력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인식의 공감대를 배경으로 하여 ‘역사 교과서 집필 기준’을 제시한다.

‘역사 교과서 집필 기준’은 역사학계의 전문가 및 역사 교육과정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여 연구진이 집필 기준을 작성하였으며, 공청회와 전문가 협의회, 교육과정심의회를 거쳐 내용을 조정하였다.

나. 서술 방향

첫째, 교육과정 및 교육과정에서 제시한 정신을 충분히 반영하여 서술한다.

둘째, 학문적 접근과 아울러 교육적 관점도 고려하여 서술한다.

셋째, 연구자들 간에 서로 해석을 달리하는 내용일 경우 학계에서 널리 인정을 하는 이른바 정통적인 학설을 수록한다.

넷째, 특정 이념이나 역사관에 편향되지 않고 우리 역사를 객관적이고 전체적인 관점에서 파악할 수 있게 서술한다.

다섯째, 우리 역사의 주체적인 발전 과정을 중시하며, 민족사에 대한 자긍심과 애정을 갖도록 한다.

여섯째, 세계사의 흐름 속에서 우리 역사의 위치를 객관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한다.

일곱째, 학문적·교육적·이념적으로 논란이 많은 내용에 대해서는 사실에 대한 평가보다는 객관적 사실 중심으로 서술한다.

여덟째, 역사적 사실에 대한 해석이 다양한 경우에는 각각의 해석을 뒷받침할 수 있는 자료를 균형 있게 제시한다.

아홉째, 교과서에 인용된 그림·도표·과제·토론 자료는 최근 데이터를 사용하며, 최대한 객관성과 균형성을 유지하도록 한다.

열째, 역사적 사실의 표현이나 용어 등은 <교육과정>과 <교과서 편수자료>를 따른다.

다. 주안점

첫째, '한국사 영역'과 '세계사 영역'으로 나누어, 각 시대별로 쟁점이 될 만한 주제를 선정하여 그 서술 범위를 제시하였다. 교과서 편찬자는 집필 기준의 모든 내용을 교과서에 담을 필요는 없으며, 쟁점 주제를 다룰 때 참고 자료로 이를 활용할 수 있다.

둘째, 다양한 학설이 존재하는 부분은 그 사실을 적시하고 이견에 대한 취급 방식 및 범위를 제안하였다.

셋째, 기존 교과서에서 최근 연구 성과를 반영하지 못한 부분을 제시하여 교과서 편찬에 참고하도록 하였다.

넷째, 교육과정을 대강화한 개정 취지를 충분히 살려 내용, 구성, 서술 방식 등에서 다양하고 창의적인 교과서를 만들도록 하기 위해 교육과정 문서의 성취기준을 상세화하지는 않았다.

다섯째, 교육과정 중 '역사'(8학년~10학년) 과목의 단원 편성을 감안하여 내용을 제시하였다. 중학교와 고등학교 교과서에 담을 내용을 일괄하여 제시하였으므로, 교과서 집필자들은 각 학년별 성취기준에 알맞은 내용을 선정하여 조직하여야 할 것이다.

한국사 영역

Ⅰ. 우리 역사의 시작

1. 민족의 기원

민족사 영역을 현재의 강역과 동일시하는 인식을 지양한다. 한반도와 주변 지역의 자연·역사·문화적 환경을 제시함으로써 우리 역사의 공간 배경을 이해하도록 한다. 민족을 이해할 때, 혈연적 요소와 문화적 요소를 아울러 고려한다. 특히 선사 시대에 우리 민족이 형성된 것이 아니라, 민족 형성의 기반이 마련되었다는 방향으로 서술한다.

2. 선사 시대의 편년

한반도와 그 주변 지역에서도 인류 역사의 보편적 전개가 확인된다. 선사 문화의 형성과 발전 과정을 넓은 시야에서 파악할 수 있도록 한다. 특히 도구의 발전을 중심으로 한반도와 세계 여러 지역에서 출토되는 유물과 비교하여 선사 문화 발전 과정을 이해 할 수 있도록 한다. 구석기, 신석기의 편년은 최근 연구 성과를 반영하여 서술한다.

3. 청동기 문화의 계통

청동기 문화가 등장하고 확대되는 양상을 관련 유물과 유적을 통하여 설명한다. 특히 한국 청동기 문화가 갖는 특성을 중국 등 주변 청동기 문화와 비교하여 그 문화적 차이와 연관성을 밝혀 준다. 청동기 문화의 상한선은 검증된 최근 연구 성과를 반영하여 서술한다.

4. 고조선

최초의 국가 고조선은 농경 문화와 청동기 문화를 바탕으로 성립되었음을 서술한다. 고조선의 성립과 발전은 고고학 자료와 문헌 자료를 충분히 활용하여 서술한다. 또한 고조선의 대표적인 유물과 유적을 통해 고조선의 세력 범위와 문화권을 제시한다.

고조선의 중심지에 대해 여러 학설이 존재한다. 그 중심이 평양 일대였다는 '평양 중심설', 요동 지역이었다는 '요동 중심설', 그리고 요동 지역에서 대동강 지역으로 이동하였다는 '이동설'이 그것이다. 이에 따라 고조선의 중심지를 추정하는 역사지리 논쟁이 여전히 남아 있음을 유의하여 서술한다.

5. 삼국 이전 여러 나라의 발전

부여·고구려·옥저·동예·삼한 등 여러 나라에 대한 기왕의 서술은 관련된 문헌 자료에 의존하였다. 최근 들어 고고학의 연구 성과가 적지 않게 축적된 사실을 감안하여 그 성과를 반영하여 서술하도록 한다. 여러 나라들이 철기 문화를 기반으로 발전한 사실과 문화적 특성을 기술한다.

Ⅱ. 고대 사회의 발전

1. 삼국의 건국 연대와 서술 순서

삼국의 국가 형성 시기와 초기 상황에 대해 학술상 논란이 적지 않다. 학계에서 널리 인정하는 학설을 바탕으로 내용을 구성하되, 삼국의 서술은 국가 발전을 감안하여 고구려, 백제, 신라 순서로 하도록 한다.

2. 부여와 가야

부여는 5세기, 가야는 6세기까지 존속하였음에 유의한다. 단 부여의 멸망 시점에 대해서는 4세기로 보는 학설도 존재한다. 기존에는 중앙 집권 국가로 성장한 삼국을 중심으로 이들 국가를 서술하였으나, 삼국과 동시대에 부여·가야가 존재하였다는 사실을 이해할 수 있는 방향으로 내용을 구성한다. 고고학계의 최근 성과도 충실히 반영한다.

3. 국가의 발달 단계를 나타내는 용어 문제

삼국은 모두 중앙 집권 국가로 발전하였다. 국가의 발달 단계를 지칭하는 용어를 둘러싸고 학술상 논란이 정리되지 않은 상황을 감안할 필요가 있다. 특정 용어를 들어 설명하기보다 삼국이 소국에서 연맹체로 발전하고 강력한 왕권 아래 집권 체제를 형성하였다는 의미를 담아 서술하도록 한다.

4. 백제의 요서 진출설

백제가 요서 지방을 차지하고 군을 설치하였다는 기사는 중국 정사에서 확인된다. 기사 작성 시점과 그 일이 있었던 시점이 멀지 않고, 백제와 중국 사이에 사절의 왕래가 있었던 점을 감안하면 사실로 볼 수 있다. 그러나 그 해석에 대해서는 역사학계의 논란이 적지 않다는 점을 감안하여 신중을 기하도록 한다.

5. 삼국 통일과 신라의 통합정책

삼국 통일 과정을 6세기 말 이후 전개된 국제 정세의 변화와 관련지어 이해할 수 있도록 서술한다. 나·당 연합의 배경, 백제와 고구려의 멸망 과정 및 부흥 운동 과정을 설명하고, 신라가 당에 맞서 통일 전쟁을 전개하였음을 기술한다.

통일 후 신라는 백제와 고구려 유민을 받아들이고 제한적이나마 이들의 관직 참여를 인정하였다. 통일신라가 적극적인 통합 정책을 폈음을 확인하고, 신라의 삼국 통일이 갖는 역사적 의의를 생각할 수 있도록 서술한다. 이어 신라의 삼국 통일로 고구려·백제·신라의 문화가 통합 발전됨으로써 우리 민족 문화의 바탕을 이룬 사실을 설명한다.

6. 발해사 서술과 남북국 시대론

발해는 고구려 유민의 당과의 투쟁 과정에서 건국되었으며, 고구려의 역사와 문화를 계

승한 사실을 서술한다. 통일신라와 발해가 병존하였던 시대를 남북국 시대로 명명하는 역사 인식이 큰 흐름을 형성하고 있음에 유의한다. 당대인의 역사 계승 의식, 통일신라와 발해의 상호관계, 후대의 역사 인식을 제시하여, 남북국 시대론의 의미와 한계를 학습자가 스스로 파악할 수 있도록 배려한다. 발해 멸망 이후 유민의 동향에도 유의한다.

7. 골품 제도

골품제는 고대 국가 성립 과정에서 정복 또는 통합된 지역의 지배층을 신분적으로 등급·서열화함으로써 성립한 제도이다. 골품 제도의 특징을 후대 신분제와 관련지어 파악할 수 있도록 한다.

8. 고대의 문화 발전과 교류

삼국의 문화적 특징을 서술하고, 삼국간의 문화 전파와 교류, 협력 관계를 서술한다. 또한 삼국과 중국·일본의 문화 교류를 구체적 사례를 중심으로 서술한다. 동아시아 고대 문화의 유사성과 차별성, 상호 교류의 시각에서 서술하여 일방적인 문화 전파로 인식되지 않도록 유의한다. 삼국 문화의 일본 전파와 함께 일본으로 이주한 사람들이 일본 고대 국가의 성립과 발전에 기여하였음을 유의한다. 통일신라와 발해 사람들이 활발하게 대외 활동을 전개하면서 경제 교역과 함께 문화 교류가 이루어졌음에 유의한다.

9. 후삼국의 정립

신라 하대의 사회 변화를 서술할 때, 새로운 계층이 대두하고 새로운 사상·이념이 형성하는 등 발전적인 면모가 있었음을 유의한다. 견훤과 궁예에 대해 그 부정적인 측면과 한계만을 기술하는 것을 지양한다. 후삼국 시기를 부정적 측면에서 분열의 시기로 조명하기보다 신라 사회의 모순을 지양하여 새로운 질서를 구축하여 고려가 등장하는 과정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한다.

Ⅲ. 고려의 성립과 발전

1. 왕권과 호족

고려는 초기에 호족 세력을 약화시키는 과정에서 왕권 강화를 위한 여러 정책을 시행하였다가 성종 대에 확립된 유교 정치 이념과 중앙 집권 체제는 왕과 호족 세력이 갈등하면서 타협을 이룬 소산물이었음에 유의하여 서술한다.

고려 초기에는 왕권과 호족이 연합해서 정권을 유지하였고, 이들의 관계는 호혜적이었다. 왕은 호족을 매개로 하여 간접적으로 지배력을 행사하였다는 호족 연합 정권설이 일반적인 견해이다. 한편 왕권이 실질적으로 호족을 지배하였다는 주장도 있다는 점을 감안한다. 그러므로 호족의 지위를 호족과 왕권의 관계 속에서 이해할 수 있도록 한다.

2. 고려의 영토 회복 의식

고려는 국호 제정에서 천명하고 있듯이 고구려 계승 의식을 분명히 했다. 고려 전기의 대외 정책은 고구려 계승 의식 및 영토 회복 의식을 바탕에 두고 있다는 점을 고려한다. 이러한 의식이 서희와 소손녕의 담판, 묘청의 서경 천도 운동 등에 반영되어 있음을 염두에 두고 서술한다. 송, 요, 금이 중국 북방지역의 패권을 다투고 있던 10세기 전후 동아시아 국제 정세 속에서, 고려가 진취적 대외 인식을 바탕으로 능동적 외교를 펼칠 수 있었음에 유의한다. 고려가 거란 등의 침략에 적절하게 대응하면서 영토 확장을 꾀했던 사실도 동일한 맥락에서 서술하도록 권장한다.

3. 향・소・부곡민의 신분

고려 시대 향・소・부곡은 특수 행정 집단이다. 향・소・부곡민은 신분제에서 천민이 아닌 양인으로 보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이들은 농업에 주로 종사하였고, 국가에 조세와 더불어 특정의 역을 부담한 신분층이었다. 이들이 양인의 최하층 신분으로서 농민층에 비해 **사회・경제적으로** 열악한 조건에 처한 존재였다는 방향으로 서술한다.

4. 고려 여성의 지위

고려 여성의 사회・경제적 지위와 특징에 대한 축적된 연구 성과를 반영하여 고려 사회 및 가족 제도와 긴밀하게 연계하여 설명하도록 한다. 다른 시대 여성의 지위에 관해서도 고려 시대와 비교하여 이해할 수 있도록 서술할 필요가 있다.

5. 귀족제설과 관료제설

고려의 귀족제설과 관료제설에 대한 논쟁을 중등학교 수준에서 상세히 다룰 필요는 없다. 고려는 혈연을 중시한 사회였으나, 개인의 능력을 바탕으로 신분을 상승시킬 수도 있었는데, 과거제가 그 대표적인 것이었다. 고려 사회의 **발전**에 따라 음서 대상이 축소되고 과거를 통해 관직으로 진출하는 통로가 확대된 점도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6. 고려와 몽골(원)의 관계

몽골이 여러 차례 고려를 침입하게 된 배경을 설명하고 그 피해를 서술한다. 최씨 정권하에서 고려가 장기간 대몽항전을 지속할 수 있었던 대내외적 요인을 파악할 수 있도록 한다. 원의 정치적 간섭으로 관제가 격하되었고, 경제적 피해도 있었음을 설명한다. 여러 차례의 내정개혁이 원의 압력으로 실패하였지만, 원의 영향이 현저히 약화된 공민왕대에는 반원자주 정책이 성과를 거두었음을 서술한다. 고려는 몽골(원)을 통해 몽골의 고유 문화뿐만 아니라 세계 문화를 접하게 되었으며, 원과 활발하게 문물을 교류함으로써 일상 생활에도 적지 않은 변화가 있었음도 제시한다.

7. 권문세족과 신진 사대부

고려 후기 등장한 권문세족의 특징을 이해하고 그들이 고려 정치 질서에 초래한 파행 상

황을 서술한다. 고려 후기 이후 과거에 급제하고 관리로서 능력을 갖춘 향리 출신의 신진 사대부들이 새로운 사회·정치 세력으로 성장한 배경과 과정을 설명한다. 한편, 성리학의 수용으로 고려 사상계가 크게 변하였고, 성리학을 수용한 신진 사대부 세력이 고려 사회의 모순을 비판하면서 새로운 사회 건설과 문화 혁신을 추진하였음을 서술한다.

최근 고려 후기 지배층을 권문세족과 신진 사대부로 나누어 설명하기 어렵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지만, 이를 구분하지 않을 경우 조선을 건국하는 주체 세력의 성격이 모호해질 수 있으므로 두 가지 개념을 구분하여 이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8. 종교와 사상

고려는 불교와 유교가 어울려 공존한 사회였다. 불교는 정치·사회의 지배이념으로서 사회 통합에 긍정적 기능을 하였다.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불교 교단의 비대화가 진전되면서 사원에서 민(民)의 토지를 침탈하는 등 불교가 사회 병폐를 초래한 측면도 제시한다. 불교가 종교의 중심에 있었지만, 다양한 종교와 사상이 공존한 사실도 강조한다. 각종 도교 행사가 성행하였고 토속신앙과 풍수지리설이 일상생활에 널리 활용되었다. 유교가 정치이념으로 자리 잡으며, 관인들의 유교적 소양도 높아졌음을 설명한다.

9. 고려의 문화

고려 전기의 사상, 학문, 예술 분야를 중심으로 귀족중심의 문화가 발달하였으며, 내우외환 속에서도 자주적이고 창의적인 문화 예술 활동이 전개되었음을 설명하고, 청자의 발달, 대장경조판 사업의 역사적 문화적 의의를 설명한다.

고려 후기에도 역사학이 발달하고, 성리학이 새로운 국가 사회의 지도 이념**으로** 등장하게 되었으며, 불교계에서는 선종의 부흥과 결사운동의 대두로 조계종이 발달하였음을 설명한다.

Ⅳ. 조선의 성립과 발전

1. 시대 구분 문제

조선 건국의 성격을 바라보는 학계의 시각은 크게 둘로 나뉜다. '중세' 사회의 재편이라는 관점과, 중세를 탈피하고 '근세' 사회를 수립하였다는 관점이 있다. 그러나 특정한 시각을 따르는 설명 방식보다는 고려 말 사회 모순을 극복하면서 조선이 성립하였고, 유교 사회의 이상을 추구하면서 각 분야에서 개혁과 정비가 이루어졌다는 관점에서 내용을 구성하도록 한다.

2. 유·불 교체

조선의 건국 주도 세력은 유교의 민본 이념에 근거하여 이상적인 유교 국가 수립을 추구하였다. 따라서 조선에서는 유교 사회를 구현할 목적으로 불교와 민간 신앙의 폐단에 대해

국가적으로 강력하게 통제하였다. 그러나 이들 신앙 체계에 대해 전면적으로 부정하거나 억압한 것은 아니었다는 점에 유의한다. '억불' 정책은 정치·사회적 역할과 기능에 따라 불교가 초래하는 사회적 문제점을 규제하려는 방안이다. '억불' 정책이 불교의 종교적 기능까지도 부정한 것은 아니라는 관점에서 서술할 필요가 있다.

3. 통치체제와 경국대전

조선 전기 정치 기구의 정비 과정과 기본 구조를 고려와 비교하여 설명한다. 조선 초기 갈등과 조정을 거치는 과정에서, 통치 체제가 왕권과 신권의 조화와 균형을 이상(理想)으로 하면서 중앙 집권적 형태로 자리해 가는 점을 파악할 수 있도록 한다. 학계에서는 조선의 통치 체제를 '경국대전 체제'를 중심으로 이해하는 경향이 있다는 점에 유의한다.

4. 대명 관계와 조공 책봉 체제

조선 시대 대외 관계를 '사대'와 '교린'의 질서로 설명한다. 사대는 조공과 책봉으로 표현되며, 식민사관에서 말하는 사대주의와는 차별되는 외교 형태임을 서술한다. 조공은 공무역이고, 책봉은 국제적 승인으로 실리적이며 평화적 국제 질서를 위한 외교 체제이다. 조공·책봉 관계는 이 시기에만 해당하는 것이 아니며, 동아시아 국제 질서 속에서 여러 나라의 필요에 의해 성립되었고, 우리도 일방적인 사대 관계가 아니라 중국 중심의 질서 안에서 적극적인 외교와 교류 활동을 펼쳤다는 점을 강조한다. 조선은 '사대·교린'의 외교 정책을 기조로 하여, 중국·일본·여진 등과 평화적이고 안정적인 국제 관계를 구축한 사실을 설명한다.

5. 경제 정책

조선 왕조의 경제 정책이 유교적 '민본' 이념에 근거하였고, 집권적인 국가 체계를 수립하려는 목적에서 추진된 사정을 이해할 수 있도록 기술한다. 조선 전기 유교적 억상 정책의 결과 상업과 수공업이 부진하였다는 종래의 시각을 지양하도록 한다. 상업과 수공업은 국가가 직접 관장·통제하는 가운데, 상당한 정도로 발전하였다는 점에 유의한다. 과전법에 대해 서술할 때, 수조권에 근거한 과전이 축소·소멸되면서 토지 소유권이 강화되었고, 이에 따라 지주제가 발전하였다는 사실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한다.

6. 신분제도와 양천제

조선의 개창과 더불어 유교와 성리학에 근거한 신분 질서의 수립이 국가적으로 모색되었음을 밝히고 조선 신분 질서를 고려와 비교하여 이해할 수 있도록 구성한다. 구체적으로 경국대전에서는 신분 제도가 법제상으로 양인과 천인의 양·천 이원체제였다. 그러나 양인이 양반·중인·상민으로 분화됨에 따라 양반·중인·상민·천민의 신분으로 구분되었음에 유의한다.

Ⅴ. 조선 사회의 변동

1. 대동법과 균역법

양란 이후 조선에서 수취제도를 개혁한 배경, 과정 및 그 영향을 당시 사회 세력과 관련지어 파악할 수 있도록 서술할 것을 권장한다. 대동법은 공납제의 폐단과 장기간에 걸친 실시 과정, 상공업 발달과 화폐 경제 발달에 끼친 영향 등을 감안하여 기술한다. 균역법은 군포 징수 제도의 폐단을 해결하기 위한 시행 과정과 군포 징수 부족분을 보충하는 방안 등을 고려하여 서술한다.

2. 붕당 정치와 탕평 정치

인조반정 이후 서인이 주도하는 정국에 남인이 참가하였다. 서인과 남인은 공존의 원리를 바탕으로 붕당 정치를 전개하여 정치 활성화에 이바지하였다. 붕당 정치를 정치 운영의 측면뿐만 아니라, 비변사 기능의 변화, 5군영 설치를 비롯한 군사제도의 변화 등과 관련지어 파악하도록 한다.

그러나 붕당 정치가 변질되어 정쟁이 격화되고 왕권이 약화되기에 이르렀다. 붕당의 대립을 완화하기 위해 국왕이 탕평책을 주도하여 실시하였음을 설명한다. 18세기에 영조와 정조는 탕평 정치를 시행하면서 왕권의 강화, 정국의 안정 등을 추구하였으며, 그 결과 정국과 사회 안정을 이루어 조선의 중흥과 문예 부흥 현상이 나타났음을 부각시킨다. 아울러 탕평 정치의 한계성도 서술하여 19세기에 세도 정치가 출현한 배경을 이해할 수 있게 한다.

3. 세도 정치

세도 정치가 서울 명문 양반들의 과두 독재체제로서 연합 정권적 성격도 지녔음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한다. 세도 정치가 어린 왕이 즉위한 까닭에 탄생한 것으로만 설명하지 않도록 유의한다. 정조 말기부터 탕평 정치의 그림자로서 세도 정치의 싹이 자라고 있었음을 염두에 두고 서술하도록 한다. 그러나 19세기 정치를 외척세도정치 일변도로 서술하는 방식을 지양하고 그 내부의 비판세력도 고려하여 서술한다.

19세기는 사회·경제적 변화가 급격히 일어난 시기이자, 새로운 사회계층이 성장하는 시기였다. 그러나 소수 외척에게 권력이 집중된 결과, 정치 기강이 문란해졌으며, 사회·경제적 발전이 지체된 점에 유의한다.

4. 조선 후기의 대외 관계

조선을 둘러싼 대외 관계 및 국제 인식의 변화상을 중심으로 서술한다. 조선의 대외 의식은 병자호란 이후 17세기에는 대명의리론과 대청복수론을 바탕으로 하고 있음을 설명한다. 이같은 의식 속에서 북벌정책이 추진되었으나, 산성수축 등 국방력 강화에 그쳤다. 18세기 중엽 이후 국제 정세가 안정되고 청과 관계가 활발해지면서 북학론이 대두하였음을 기술한다. 일본과의 관계는 기유약조와 통신사 파견, 문물 교류 내용을 중심으로 서술하고, 19세기 초 이후 통신사 파견이 중단되었음을 설명한다. 서양과의 관계는 서양인이 도래하고 서양에

대한 지식이 확산되면서, 서양을 어떻게 볼 것인가를 둘러싼 논의가 일어났다는 점에 유의한다.

5. 상품 화폐 경제의 발달

조선 후기에 농업·수공업·광업 분야에서 생산력이 발전하고 상업도 크게 발달하였다. 모내기법의 보급, 상품 작물 재배, 민영 수공업 확산, 설점수세제, 장시와 사상의 성장, 시장권의 확대, 화폐 유통의 확대가 그 대표적 예이다. 상품 화폐 경제 발달상을 사례별로 나열하는 데 그치지 않도록 한다. 새로운 계층의 대두, 신분제의 추이, 수취 제도의 변화와 관련지어 당시 경제 변화를 이해할 수 있도록 한다.

6. 신분제의 변화와 향촌 사회

조선 후기에 신분제와 향촌 질서가 동요·분화하는 현상을 이해한다. 양반 수의 증가 추세 속에서 벌열 양반, 향반, 잔반 등으로 계층이 분화하였음을 설명한다. 또 경제 성장과 함께 농민층도 분화하여 부농층 및 임노동자가 출현한 사실에 주목한다. 중인층이 전문 지식과 경제력을 바탕으로 성장하였고, 노비 수가 급격히 감소한 사실을 서술한다. 중인의 신분 상승을 위한 노력, 제도적 차별의 점진적 폐지, 공노비 해방의 의미, 향권을 요구하면서 새롭게 대두하는 신흥 계층의 움직임 등 최근의 연구 성과를 반영하도록 한다.

7. 사회의식의 성장과 농민 봉기

19세기는 조선에서 전통 사회 해체가 본격화되고 내부 모순으로 인해 사회 갈등이 격화되었다. 이러한 농민 봉기의 배경과 원인을 세도 정치 시기의 삼정의 문란, 총액제에 의한 세금 징수, 빈발한 자연 재해와 유민 증가, 향회 기능의 변화 등과 연관시켜 이해할 수 있도록 한다. 1811년의 홍경래의 난과 1862년의 임술 농민 봉기는 당시 상황을 잘 보여주는 사례이다. 농민 운동을 다룰 때에는 상품 화폐 경제의 성장과 향촌 사회의 구조 변화 등 당시 사회·경제적 변화 양상을 반영할 필요가 있다. 또한 농민의 사회 의식 성장이 뒷받침되었음에 유의한다. 도참과 예언 사상의 유행, 천주교의 확산, 동학의 성립이 이 시기에 일어난 일임을 감안한다.

8. 사회 개혁론의 대두

조선 후기 사상과 학문의 동향을 성리학 이념의 실천, 양명학의 수용, 실학의 발달 등을 중심으로 종합적으로 서술한다. 조선 성리학의 경향은 의리와 명분을 강조하였고, 인조 반정 이후에 그러한 경향이 더욱 강화되었음을 설명하고 성리학의 한계성**도** 지적한다. 실학의 발생 배경과 연구의 확산 과정을 설명하고, 특히 실학이 사회·경제적 변화를 반영하여 개혁론을 펼쳤음을 고려한다. 실학자의 기본 입장을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면서 실학의 학문적 특성과 한계도 아울러 제시할 필요가 있다.

9. 조선 후기 문화

양난 극복 후 18세기 조선 고유 문화가 발달하였음을 서술한다. 문화에 대한 자부심과 현실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어 우리의 역사, 지리, 국어 등을 연구하는 국학이 발달하였음을 이해할 수 있도록 서술한다. 조선 후기에는 전통적 과학 기술을 계승하면서도 중국을 통해 들여 온 서양 과학 기술을 수용하여 한 단계 높은 수준으로 발전시켰음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한다.

조선 후기 사회·경제적 변화를 바탕으로 중인층과 상민층이 성장하여 이들 중심의 서민 문화가 발달하였음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한다. 이와 동시에 한글 소설과 사설 시조 등이 널리 유행하면서 서민 문화의 발달을 뚜렷하게 보여주었으며, 이러한 서민 문화의 발달은 서민 의식의 성장에도 기여하였음을 주지시킬 필요가 있다.

Ⅵ. 자주적 근대 국가의 수립

1. 흥선 대원군 집권기의 정치

19세기 중엽, 안으로 세도 정치와 부패한 양반 사회에 대한 농민의 저항이 커져 가고, 밖으로 서양 세력이 접근해 오던 시기에 흥선 대원군이 집권하였음을 설명한다.

흥선 대원군의 개혁 정치는 왕권을 강화하고 농민의 생활을 안정시켜 조선 왕조의 통치 체제를 재정비하는 데 의도가 있었음을 서술한다. 서구와의 통상 수교 거부정책의 원인과 전개를 안내하면서 세계 정세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지 못한 한계가 있었음을 설명한다.

2. 개항과 불평등 조약

1876년 강화도조약과 그 이후 일본 및 서구 열강과의 통상 조약이 불평등 조약이었음을 설명함으로써 '개항'의 의미를 알 수 있게 한다. 개항의 영향이 경제적 교류 통상에 그치지 않고 정치적 종속과 근대 사회로의 개편 강제 등 전사회적으로 미친다는 점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한다. 또한 대외 관계에 있어서도 중국 중심의 전통적 국제 질서에서 서구 열강 중심의 근대 질서로 전환되는 과정이었음을 설명한다. 아울러 개항과 국교 확대를 둘러싼 국내 척사와 개화 세력 등 여러 대응 방식에 대해 서술하도록 한다.

개항 이후 국가가 추진한 '위로부터의 근대화 정책'과 국민이 추진한 '아래로부터의 근대화 운동'에 대해 균형 있게 서술한다.

3. 개화 정책과 개화운동

1880년대 전반 조선 정부가 추진한 개화 정책의 전개 과정과 그 한계를 서술한다. 조사시찰단이나 영선사 파견, 서구 문물 수용의 사례를 들어 당시 개화 세력이 이해하고 있던 서구 근대 문명의 이해 수준을 파악하도록 한다.

임오군란을 전후한 시기에 사회적 갈등을 설명하면서 당시 개화 정책을 둘러싼 여러 세력의 주장과 의미를 비교하여 설명한다. 임오군란은 개화 정책에 대한 반발의 성격이 있음을 지적한다.

개화사상의 사상적 연원과 개화세력의 형성 과정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한다. 개화 사상은 1860년대 이후 태동하여 1880년대 온건 개화파와 급진 개화파로 분화하였다는 인식이 일반적이다.

갑신정변의 성격에 대해서는 학설적 규정보다는 주도 세력이 지향한 사회의 성격과 실패한 이유, 이후 전개되는 국제적 대립의 격화를 통해 공과에 대한 평가를 균형 있게 서술한다.

4. 위정척사운동의 연원과 계승운동

위정척사운동은 성리학에 기초를 둔 정체성 보존운동으로 척화론, 북벌론, 통상수교거부론, 척사론으로 이어져 왔고, 이후 의병 운동 및 독립운동으로 연결되었음을 설명한다. 위정척사의 의미를 알고 전개 과정을 주요 인물과 연계하여 서술하고, 반침략 운동으로 외세의 침략에 대해 정확하게 인식하였던 점을 평가한다.

5. 동학 농민 운동

동학 농민 운동의 성격에 대해서는 '민란', '전쟁', '혁명' 등 다양한 학설이 존재함에 유의한다. 동학 농민 운동의 발발 배경과 전개 과정을 이해하고 농민군이 주장했던 사회 개혁의 내용과 지향을 파악한다. 2차 봉기 시 일제의 침략을 막기 위한 연합 전선의 전개에 주목하고, 이후 농민군 탄압이 자행되었던 상황과 향촌 사회에 끼친 영향을 설명한다. 당시 상황에서 동학 농민 운동을 통해 농민이 추구한 이상 사회 모습을 사료를 통하여 학생들이 탐구할 수 있도록 서술한다.

6. 갑오개혁의 추진과 청일 전쟁

갑오개혁은 시기별로 추진 주체, 성격, 내용, 지향점에 대하여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을 함께 서술한다. 당시 국내외 정세 속에서 정부가 개항 이후 개화·개혁 정책의 연장선에서 주체적으로 개혁을 추진하였으나 일본의 내정 간섭을 받았다는 점에 주목한다. 갑오개혁의 성과에 대해 근대 국가 수립운동에서 차지하는 위치를 평가하고, 동학 농민 운동과 갑오개혁, 청일 전쟁을 별도로 다루기보다 상호 관련성 속에서 입체적으로 설명한다.

7. 대한 제국과 광무개혁

대한제국은 각 나라의 주권을 인정하는 '만국공법'에 기초하여 건국되었기 때문에 국제법으로 인정된 자주 독립 국가임을 강조한다. 대한제국은 '구본신참'이라는 맥락에서 광무개혁을 추진하는 등 자주적 근대화를 위하여 노력하였음을 서술한다. 황제권의 위상 강화, 정치 제도의 개혁, 각종 근대화 사업에 주목하여 서술한다. 양전·지계 사업을 통해 근대적 토지소유권의 성립을 살펴본다.

아관파천 이후 독립 협회의 성립 배경과 활동 내용을 국내외 정세와 연관하여 설명한다. 독립 협회와 대한제국은 국내외 주요 쟁점에 대해 상호 대립·협조하는 양면성을 지녔음에 유의한다.

8. 개항기 사회 경제와 경제적 구국 운동

개항 이후 개항장이 설치·확대되는 과정에 주목함으로써 제국주의 열강이 불평등 조약 체제와 무역을 매개로 조선에 경제적 지배력을 확대한 과정을 이해하도록 한다. 1880년대 후반 이후 청과 일본 상인의 불법적인 경제 활동, 1890년대 후반 이후 제국주의 열강의 이권 침탈 과정과 결과를 설명한다.

1890년대 후반 이후 열강의 경제적 침탈에 대항하여 전개된 경제적 구국운동을 강조하여 서술한다. 조선 상인이 상인 조합이나 상회사 등을 조직하여 청과 일본의 상권 침투에 저항하였음을 설명한다. 개항 이후 외국 상인의 상권 침투에 밀려 몰락하는 조선 상인의 상황을 설명하면서 경쟁을 통해 성장해 간 경우도 있었다는 긍정적인 면도 함께 서술한다. 불평등 조약 개정 노력을 식산 흥업 운동, 이권 수호 운동과 함께 다루도록 권장한다.

9. 애국 계몽 운동

애국 계몽 운동은 사회진화론에 의거하여 국민을 계몽하고 산업을 육성하여 실력을 길러야 한다는 점에서 운동의 특징과 한계를 설명한다. 애국 계몽 운동의 전개 양상을 서술하면서 근대 사상과 문화의 수용·전파가 이루어졌음을 설명한다. 일제의 침략에 맞선 국권 수호 운동의 전개를 의병 운동과 애국 계몽 운동이라는 두 흐름으로 정리하되, 두 계통 운동이 서로 대립하는 등 차이점도 있음을 서술한다.

10. 항일 의병 운동

항일 의병 운동은 발생 동기를 중심으로 을미, 을사, 정미 3시기로 구분하도록 한다. 각 시기별로 의병 운동 전개 과정을 설명하고, 의병 운동을 계기로 독립군 기지 건설 운동이 전개된 점과 일제 강점기의 독립운동으로 계승되었다는 점도 서술한다. 의병 토벌, 의병 학살 등 일본 측 자료에 따른 표현을 자제하고 주체적 관점에서 기술한다. 병오의병 등은 을사의병의 연속으로 보아 별도로 개념을 사용하지 않을 것을 권장한다.

11. 일제의 국권 강탈

러·일 전쟁 이후 일제의 국권 강탈이 본격화되었음을 이해하고, 일제의 침략 과정과 일제에 협력한 반민족 세력의 동향에 대해서도 기술한다. 일련의 조약 체결을 둘러싼 용어 문제에 유의한다. 1904년부터 3차례 협약이 있었다. 그런데 한·일협약이란 명칭을 정식으로 사용한 것은 1907년뿐이다. 일제의 주권 침탈을 협약으로 인정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못하다는 견해가 있다. 을사조약이 '조약'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논란과 그 체결 여부에 대해서도 이견이 있다. 기본적으로 편수 용어를 따르되, 여러 견해가 있음을 고려하여 서술한다.

12. 근대의 사회와 문화

근대 문물의 유입과 학교 교육의 전개 양상을 다룬다. 통감부 시기의 교육은 민족 교육을 제한하고 탄압하였음을 설명한다. 국학에 대해서는 근대 민족주의 역사학의 등장을 서술하

고 계몽적인 특성과 반식민사학적 성격도 설명한다. 종교에 대해서는 특정 종교에 대해 편향이 없도록 하고 역사적 사실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설명하도록 한다.

13. 독도와 간도

대한제국이 관보를 통하여 독도 영유권을 분명히 한 사실, 독도 영유권을 부정했던 일본이 러·일 전쟁 때 독도를 불법적으로 편입한 사실 등 최근 연구 성과를 반영하여 독도 문제를 기술하도록 권장한다.

간도 귀속 문제와 간도 협약의 내용을 설명하되, 간도 협약은 일본이 외교권을 불법적으로 사용하여 체결하였음을 강조한다. 좁은 의미에서 간도는 두만강 건너편의 개간지를 의미하며, 넓은 의미로는 남만주 일대를 지칭하여 서간도와 북간도로 구분하기도 한다. 간도를 지칭할 때는 좁은 의미로 사용하되, 넓은 의미로 써야 할 경우 당시의 표현을 사용한다.

Ⅶ. 민족의 수난과 독립 운동

1. 식민지 근대화 문제

일제가 한국에 철도와 교량을 가설하고, 학교를 설립하고 공업화를 추진했다는 점과 '근대 경제 성장'이 일어났다는 점 등을 근거로, 이른바 '식민지 근대화'를 주장하는 견해가 있다. 일제 강점기 동안 '근대화'나 '자본주의화'가 일부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왜곡된 식민지 공업화 형태로 나타나, 오히려 광복 이후 한국사에 부정적 영향을 끼쳤음을 강조하여 서술한다. 일제 강점기에 다양한 삶의 모습을 서술할 때도 이러한 점을 염두에 두는 것이 필요하다.

2. 토지 조사 사업

토지조사사업에 의하여 조선총독부의 토지 수탈도 이루어졌지만, 동양척식 주식회사나 일본 민간 자본의 토지 매입과 고리대를 구실로 한 기만적인 토지 약탈도 함께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서술한다. 기존에는 조선 총독부가 토지 조사 사업을 통해 토지를 직접 수탈했다는 인식이 많았다. 하지만, 최근 연구에 따르면 이러한 주장은 일제가 국유지를 창출하면서 일부 민간 소유지를 끼어 넣는 바람에 소유권 분쟁을 야기하였던 사례들을 지나치게 강조한 결과라는 평가가 많다.

토지 조사 사업으로 일제가 토지 소유권을 근대법적으로 확인하였지만, 지주제를 강화함으로써 농촌은 급격히 해체되었음을 설명한다. 농민들은 불안정한 소작권과 과도한 소작료 등으로 생활이 크게 위협받았음에 유의한다.

3. 3·1 운동과 대한 민국 임시 정부

3·1 운동의 배경을 민족자결주의 등 외인을 강조하는 경향과 민족의 주체 역량 등 내인을 강조하는 경향을 모두 고려하여 서술한다.

민족 대표 33인의 역할은 논란이 많으나 초기 조직 단계의 역할은 대체로 동의하고 있다. 3·1 운동의 주도층으로 청년층, 학생층을 강조할 필요가 있고, 운동 후기로 갈수록 농민이나 노동자, 상인 등이 주도층으로 등장하였음을 염두에 두도록 한다. 3·1운동을 진압하는 과정에서 일제가 보여준 잔인성을 환기시킬 필요가 있다.

3·1 운동의 연장선에서 수립된 대한민국 임시 정부의 활동과 역사적 의의를 서술한다. 1930년대 이후 대한민국 임시 정부 활동을 서술하면서 건국 강령 제정과 그 내용에 대해 충분히 설명할 필요가 있다. 제2차 세계대전 중에 대한민국 임시 정부는 한국 광복군을 결성하고, 중국 관내 민족 운동 세력을 통합하였음을 유의하여 서술한다. 3·1운동과 대한민국 임시정부로 이어지는 민족 운동의 역사는 헌법 전문에서 대한민국의 정통성으로 인정받고 있음을 지적한다.

4. 국내 민족 운동의 전개

일제 강점기 민족 운동을 서술함에 있어, 자의적으로 특정 계열을 정통 노선으로 설정하고 다른 노선은 민족 운동 범주에서 제외하거나 부정적인 면만 부각시켜 서술하는 태도는 지양하고 균형 있게 서술한다. 일제 강점기 민족 운동이 다양한 노선과 사상 위에서 전개되었고, 다양한 주체가 참여하여 마지막 순간까지 끈질기게 일본 제국주의와 싸웠다는 사실을 강조하여 독립운동의 역사에 대한 자부심을 갖도록 한다.

5. 국외 민족 운동과 국제 정세

3·1 운동 이후 국외 각 지역에서 전개된 민족 운동은 당시 국제 정세의 변동과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음으로 세계사의 조류 속에서 입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서술한다. 무장 독립군이 국외에서 전개한 항일 독립 운동의 흐름을 구체적 사건을 중심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배려한다. 다양한 무장 독립 투쟁의 전개 양상은 특정 이념에 편향되지 않게 공평하게 서술한다.

6. 국외 동포의 시련과 활동

일제의 탄압과 농촌 해체, 농민 몰락이 심해짐에 따라 국외로 대거 이주하였음을 설명한다. 국외 동포들이 독립 운동에 기여한 사실과, 이들이 겪은 수난을 함께 서술한다. 국외 이주자들의 노력으로 오늘날 해외 한인 사회가 형성되었음을 알 수 있도록 한다.

7. 실력 양성 운동

민족의 실력을 기르는 방안은 교육을 통한 인재 양성, 민족 자본의 형성, 부정적인 사회 관습의 타파, 근대적인 문화의 본격 수용 등으로 요약될 수 있다. 이 운동은 언론과 강연을 통한 계몽 운동, 각종 학교 설립 운동, 물산 장려 운동 등으로 진행되었다.

실력 양성 운동이 야학 등의 교육기관을 설립하여 교육열을 높인 점, 전근대적인 사회 관습을 타파하는 데 기여를 한 점 등 긍정적인 면을 강조하되, 일제 지배 하에서 기본적으로 한계가 있었다는 점도 아울러 설명하도록 한다.

8. 사회주의 운동

일제 강점기 사회주의 운동은 '민족 독립'을 목표로 하였다는 점을 감안하여 민족 운동 범주에 넣어 서술할 필요가 있다. 한편 사회주의자들은 계급성과 국제 연대를 중시하는 노선과 민족 내부의 연합 전선을 중시하는 노선 사이에서 갈등하였다. 사회주의자들이 코민테른의 지시를 과도하게 중시하고 사회주의 혁명의 가능성을 지나치게 낙관적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었음에 유의한다.

9. 신간회와 민족 협동 전선 운동

신간회는 민족주의계와 사회주의계의 합작으로 결성되어, 비타협적 독립운동을 전개하였음을 서술한다. 민족 협동 전선, 혹은 민족 유일당론 위에서 결성된 사실을 감안하여, 그 의의를 적극적으로 평가할 필요가 있다. 1937년 중·일 전쟁이 발발하면서 국외에서 민족주의자와 사회주의자의 연합 전선이 형성되었음에 유의한다.

10. 민족 문화 수호 운동

일제는 식민 통치를 합리화하고 지배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해 황국 신민화 정책에 따른 동화정책을 추진하였다. 교육에서는 하급 인력 양성에 초점을 맞췄기 때문에 고등교육의 기회는 매우 제한적이었던 반면 실업교육이 강조되었음을 지적한다. 이에 대항하여 한글 연구와 보급 운동이 전개되었고, 일제의 식민 사관에 맞서 다양한 한국사 연구 활동이 전개되었음을 설명한다. 특히 신채호, 박은식 등 민족주의 사학자의 활동이 독립운동의 사상적 기반을 제공하였음을 서술한다. 또한 일제의 탄압 속에서도 다양한 민족 교육 기관들이 민족의식 고취에 기여하였고, 종교 단체들이 민족 운동과 사회 운동에 공헌하였음을 서술한다.

Ⅷ. 대한 민국의 수립과 발전

1. 대한 민국의 수립

제2차 세계 대전 이후 국제 정세는 미국과 소련의 대두, 자유 진영과 공산 진영의 대립, 냉전 체제의 형성을 중심으로 이해할 수 있다. 광복 직후 정치 상황과 관련하여 우리나라와 관련된 미국과 소련에 대한 서술에서, 특정 국가, 특정 이념에 치우친 편향된 시각은 지양하고, 정확한 역사적 사실을 토대로 객관적으로 서술한다.

광복 직전의 건국 준비 활동은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건국 강령을 중심으로 이해하고, 8·15 광복이 연합군의 승리와, 우리 민족이 줄기차게 전개한 독립 운동의 결실로 이루어졌음을 설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모스크바 3국 외상 회의의 결정 내용을 이해하고, 많은 국민들이 신탁 통치 반대 운동을 지지하게 된 이유, 미·소 공동 위원회의 결렬 이유, 8·15 광복 이후 전개된 좌·우 합작 운동과 남북 협상이 실패하게 된 이유를 설명한다.

대한민국 정부는 대한제국 및 대한민국 임시 정부를 계승한 정통성 있는 국가임을 설명

한다. 또한 UN의 결의에 따른 총선거를 통해 대한민국이 수립되고, UN에 의해 합법 정부로 승인되었음을 강조한다. 대한민국 정부 수립 과정과 역사적 의미를 서술하고, 대한민국 정부 수립 설명 시 대한민국의 건국과 시련, 발전을 중심으로 하는 역사적 관점에서 서술한다. 대한민국은 이후 농지개혁을 추진하고 친일파 청산에 노력하였음을 서술한다.

2. 6·25 전쟁

6·25 전쟁이 북한의 남침으로 시작되었다는 사실을 명확히 하고, UN군이 참전하고 중국군이 개입하는 등 국제적 전쟁으로 확산되면서 전쟁이 3년 동안 지속된 과정을 설명한다. 전쟁 결과 수많은 사람이 죽거나 다쳤고 경제가 파탄되는 등 우리 국민과 국가에 엄청난 피해가 발생했다는 점을 지적하여 평화의 소중함을 일깨우도록 한다. 또한 휴전 협정의 추진 과정과 그 내용, 6·25 전쟁의 국제적인 맥락도 서술할 필요가 있다.

3. 4·19 혁명과 민주주의의 시련

4·19 혁명은 장기 집권을 위한 이승만 정부의 정치적 탄압과 부정 선거 등에 맞서 일어났음을 설명하고, 그 전개 과정과 역사적 의의, 한계를 서술한다. 이승만 또는 이승만 정부의 역할 서술 시 대한민국 정부 수립에 기여한 긍정적인 면과 독재화와 관련한 비판적인 점을 객관적으로 서술한다. 4·19 혁명의 결과로 탄생한 민주당 정부에 대해서도 설명한다.

박정희를 중심으로 한 군부가 5·16 군사 정변을 일으켜 군사 정부를 세웠음을 기술한다. 이후 두 차례 헌법 개정을 통하여 1인 장기 집권 체제가 성립되었음을 다룬다. 이승만과 박정희 정권 때의 독재 정치와 민주화 운동을 서술하면서, 그 배경에 대하여 함께 설명한다.

유신 체제가 무너진 뒤 5·18 민주화 운동을 비롯하여 민주주의 체제를 수립하려는 국민의 노력이 있었으나, 전두환 등 신군부가 정권을 장악하였다. 군사 정부의 성립 과정과 문제점에 대해 객관적 사실을 중심으로 서술한다.

4·19 혁명, 5·18 민주화 운동 등을 통하여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발전해 나갔음을 서술한다.

4. 6월 민주 항쟁과 민주주의의 발전

1987년 6월 민주 항쟁의 배경과 전개 과정을 다루고, 그 결과 대통령 직선제와 국민의 기본권 확대를 바탕으로 한 새 헌법이 제정되었음을 서술한다. 이후 독재 정치 아래서 억압되었던 기본권이 점진적으로 신장되었음을 유의하여 대한민국 민주주의가 발전해 나갔음을 서술한다. 현 정부에 대한 서술은 국정 지표 수준으로 제시하고 평가는 유보한다.

5. 경제 개발과 자본주의 발달

1960년대부터 정부 주도로 경제 개발 계획을 본격화하면서 수출 증대와 고도 성장을 달성하였다. 1970년대 제조업의 중심이 경공업에서 중화학 공업으로 바뀌었고, 이후 전자 산업을 비롯한 첨단 산업이 발달하고 있다. 민간의 역할이 확대되고 경제 개방이 가속화하는 속에서, 경제 주체들이 어려운 환경을 슬기롭게 헤쳐 나간 결과, 오늘날 세계적 경제 대국

으로 도약한 사실을 서술한다.

대한민국의 경제성장과 산업화가 비약적으로 가능했던 이유를 국민의 노력, 정부의 역할, 국제 정세를 중심으로 설명하고, 산업화에 따른 문제점도 함께 파악할 수 있도록 한다.

대한민국이 성취한 민주주의와 경제발전이 상관 관계가 있음도 서술한다.

6. 사회 문화의 변화

산업화는 사회·문화적인 면에서 이전 사회와 뚜렷이 구별되는 새로운 사회를 형성하였다. 산업화가 추진되면서 도시화와 직업 구조의 변화가 일어났으며, 노동·농민·시민 운동이 전개되었음을 파악한다. 사회 보장 제도 도입, 인구의 해외 이동도 다룰 필요가 있다.

과학 기술의 발달은 산업화와 생활환경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광복 이후 과학 기술의 성장이 산업화와 생활환경에 끼친 영향을 과학자나 과학적 성과를 통해 다루도록 한다.

산업화의 결과, 개인의 경제력이 증대되고 여가 생활을 누릴 수 있게 되면서 다양한 분야에서 대중문화가 발달하였다. 광복 이후 의무 교육 제도가 시행되고, 전통에 뿌리를 둔 교육열과 성취욕으로 교육의 대중화가 급격히 진행되었다. 이를 통해 인재가 양성되어 사회 발전에 기여하였다는 점도 다룬다.

7. 북한 사회주의의 변화

북한 정권의 성립과 변화 과정을 사실 중심으로 객관적으로 서술하고, 북한 사회의 어두운 면도 함께 서술한다. 북한의 주체사상 및 수령 유일 체제의 문제점, 경제 정책의 실패, 국제적 고립 등으로 인해 북한 주민이 인권 억압, 식량 부족 등 정치·경제적으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사실을 서술한다. 북한의 사회·문화 분야에 대해서도 서술함으로써 남북한 사이의 이질화 정도를 가늠하고 통합 방안을 모색할 수 있도록 배려한다. 또한 북한 자료를 인용할 때는 체제 선전용 자료 사용에 신중을 기한다.

8. 대한 민국의 통일 정책과 평화 통일 과제

6·25 전쟁을 계기로 분단 체제가 고착화되어 남북 사이의 경쟁과 대립이 오래 동안 계속되고 있다. 남북 분단으로 인해 겪은 고통과 경쟁 때문에 지불해야 할 분단 비용이 적지 않음을 지적 한다.

역대 정부 차원의 통일 정책과 민간 차원의 통일 노력을 함께 서술하되, 통일의 필요성과 과제에 대해 학생들이 탐구할 수 있도록 한다.

세계사 영역

Ⅰ. 고대 문명의 형성과 통일 제국

1. 인류의 기원과 진화

인류는 환경과 부단한 상호 작용을 통해 진화해 왔다. 그러나 진화 과정은 소위 '잃어버린 고리'를 채워야 하는 등 여전히 미완성의 가설로 남아 있다. 오스트랄로피테쿠스부터 현생 인류까지 진화한 과정에 대해 최근의 연구 성과를 반영하여 서술할 필요가 있다.

2. 이집트 문명

미라와 피라미드로 대표되는 이집트 문명에 대해서는 상형문자의 해독을 통해서 그 역사가 밝혀지고, 문명으로서의 가치와 영향을 보여주고 있다. 이집트 문명을 다룰 때에는 환경과 인간의 노력, 그리고 종교와 정치 지배의 역학관계를 찾아보는 데 유의한다. 이집트 문명의 특수성은 나일 강의 주기적인 범람이라는 독특한 주기성과 깊은 관련을 맺고 있다. 이를 메소포타미아 문명과 비교해 볼 수 있다.

3. 메소포타미아 문명

메소포타미아 지역은 청동기 등장 이전부터 발전하였다. 이러한 점에서 신석기 혁명의 결실과 청동기 문명의 등장이 결합한 것으로 이 지역의 문명을 설명할 필요가 있다. 한편 이 지역에서 출토되는 석재나 금속 유물은 자생적인 재료가 아니라 수입된 재료로 만들어진 것이다. 이는 메소포타미아의 농업이 교환의 기초가 되었고, 이를 기반으로 주변지역과 상호 교류를 통해서 비약적인 성장을 이루었음을 보여준다.

4. 중국 문명

황하 문명 및 황하 일대 이외의 지역에도 여러 문명이 존재하였음이 확인된 지 오래되었다. 신석기 여러 문화 가운데 대표 유적으로서 양사오 문화와 룽산 문화를 지적하는 것은 무방하지만, 문명의 준비 단계를 대표하는 문화로 언급하는 것은 주의해야 한다.

5. 인더스 문명

모헨조다로와 하라파 유적에는 농경 기술을 기초로 고도로 발달한 문화가 남아 있어서 인더스 강 일대가 세계 고대 문명의 주요 발상지임을 확인시킨다. 이 문명은 문자를 남길 정도로 성숙한 문화를 보유하고 있었지만, 현재 문자의 해독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아 구체적인 역사는 분명하게 알 수 없다.

6. 춘추·전국과 진·한 제국

춘추·전국은 열국이 상쟁하는 분열의 시기이다. 이와 동시에 춘추·전국 시대에 철기가 보급되어 농업·수공업이 발달하였고, 새로이 구축된 지배 체제를 기반으로 사회적 대변혁이 진행된 결과, 중국의 실체가 형성되어 가고 있었던 점에 주의한다.

당시 제자백가가 갖는 사상적 위치와 역사적 가치를 이해시킬 필요가 있다. 진(秦)은 성공적인 개혁을 통해 국가 체제를 효율적으로 정비하고 열국을 통일한 후 황제 지배 체제를 마련하였다. 황제 체제가 한대에 이르러 정착하고, 동아시아 역사 전개에 중요한 기능을 수행하는 점을 부각하여 서술한다.

중국 한족 왕조는 화북을 중심으로 정치·문화적 중화 질서를 구축해 가는 한편, 유목 민족과 상생·경쟁하며 발전하여 왔다. 그러나 중국 한족 왕조가 유목민의 정치·군사적 우월성을 극복하는 데에는 대체로 어느 정도 한계를 보였다는 점에 유의한다.

7. 중국의 분열과 통일 제국의 재등장

한의 붕괴 이후 중국은 분열 시기에 들어간다. 남북조 시기 화북 지방에는 5호라 불린 북방 민족이 침입하여 한족과 공존하면서 중국화된 국가들을 건설한 점에 주목한다. 중앙아시아를 통해 외래종교가 중국에 소개되고, 그 정치·문화적 전통이 새롭게 변화하는 사실을 서술할 필요가 있다.

장기간의 분열에 종지부를 찍고 중국을 다시 통일한 수와, 이를 계승한 당이 갖는 역사적 의미를 이해한다. 당은 주변 국가들을 압박하는 등 동아시아의 세계에 커다란 변화를 가져왔으며, 수도 장안을 중심으로 국제 질서가 형성된 사실을 인식시킬 필요가 있다.

8. 소승 불교와 대승 불교

불교계를 대승과 소승으로 구분하는 것은 어디까지나 대승 불교 측 견해임에 유의한다. 동남아시아와 스리랑카 불교의 주류를 표현할 때 '소승 불교'보다는 '상좌부(上座部) 불교'라는 용어 사용이 적절하다는 의견이 많다.

9. 아테네 민주주의

'그리스 민주정'이라는 용어는 오해의 소지가 있다. 고대에 그리스라는 국가는 없었으며 그리스와 그 주변 지역에 많은 국가가 있었고, 그중 민주정을 유지한 국가는 아테네가 대표적이다. 그런 의미에서 '아테네 민주정' 혹은 '아테네 민주주의'라는 용어가 더 적절하다고 본다.

10. 헬레니즘

그리스 문화가 서아시아와 이집트 지역 등으로 확산되면서 오리엔트 문명과 융합하여 나타나는 헬레니즘 문화는 시대 구분의 의미로도 쓰인다. 헬레니즘 시대는 문화적으로는 로마

제정 시기도 포괄하기도 하지만, 주로 알렉산드로스의 정복 전쟁 이후부터 악티움 해전까지의 시기를 지칭한다. 당시 지역 단위의 영역을 넘어서 세계시민주의가 등장하게 되는 것에 주목한다.

11. 로마 제국

로마 제국의 해체에 관해서는 논쟁이 많다는 점에 유의한다. 제국의 멸망을 훈족이나 게르만족의 침입만으로 설명할 것이 아니라 여러 내부 요인 곧, 경제의 이질화 현상, 지방의 탈중심화, 사회의 양극화, 로마 군대의 변화 등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또한 로마가 사산 제국과 경합하였던 사실을 통해서 로마의 힘이 상대적이었다는 점을 보여줄 수 있다.

12. 사산 왕조 페르시아

사산 왕조 페르시아는 아케메네스 왕조 페르시아와 연속선상에서 파악하도록 한다. 이 왕조는 226년 파르티아를 무찌르고 창시되어, 이슬람에 패배하는 651년까지 지속되었다. 이란, 이라크, 아프가니스탄, 아르메니아, 시리아, 터키 일부, 파키스탄, 중앙아시아, 아라비아를 장악한 까닭에, 일반적으로 사산 왕조를 제국이라고 칭한다. 이러한 점에서 '사산 제국'이라는 용어를 쓰지는 않더라도 제국적 특징을 서술하는 데 유의한다.

Ⅱ. 다양한 문화권의 형성

1. 아바스 왕조

아바스 왕조의 성립으로 아랍인의 권력 독점은 종언을 고하였다. 이 왕조는 이슬람화된 이란인들을 지배 엘리트에 등용하는 등 페르시아적 요소를 강화하였던 점에서 큰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 이 시기 바그다드가 동서 교류의 중심으로 부상한 사실도 주목할 만하다.

2. 이슬람 경제와 문화

낙타를 이용한 대상 무역은 이슬람 원거리 무역의 핵심에 위치하며, 이를 통해 도시·지역간의 경제·문화적 교류를 이해할 수 있다. 또한 지중해로부터 인도양, 남중국해를 잇는 동서 해양 무역에서 이슬람 상인이 차지한 역할과 위상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한다.

이슬람 문화는 페르시아와 인도 등의 영향을 받아 수학·천문학·물리학 등 자연 과학이 크게 발달하였다. 또한 이슬람 과학이 유럽의 근대 과학에 크게 기여한 사실을 강조할 필요가 있다.

3. 프랑크 왕국의 성립

오늘날 유럽 통합과 관련해서 '유럽'의 정체성 문제가 학자들의 주목을 받고 있다. '서로

마 제국의 부활'은 그리스·로마의 고전 고대 문화의 부활, 가톨릭 교회제도 및 로마제국 이념의 부활에서 찾을 수 있으며, 이는 유럽 사회의 민족이나 인종의 다양성, 문화 수준의 차이, 언어의 다양성을 극복하는 데 기여하였다. 따라서 카롤루스 대제의 대관식이 열린 800년을 유럽이 형성한 시기로 보는 것이 일반적인 인식이다.

4. 슬라브족

오늘날 유럽을 구성하는 대표적 민족은 라틴족, 게르만족과 슬라브족으로 볼 수 있다. 지금까지 다른 민족에 비해서 슬라브족에 대한 설명은 미약하였다. 20세기에 일어난 두 차례 세계 대전을 역사적으로 이해하기 위해서도 슬라브족에 대한 이해는 중요하다. 고대 로마 제국이 로마 가톨릭, 그리스 정교의 2개의 새로운 문화권으로 분열·발전하여 오늘날까지 지속되고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고, 슬라브족의 역사를 이해할 수 있도록 배려한다.

5. 비잔티움 제국

로마 제국이 476년 오도아케르에 의해서 멸망했다는 관점에서는 비잔티움 제국을 설명할 수 없다. 로마의 정통성이 비잔티움 제국으로 계승되어, 1453년 오스만 튀르크에 의해서 멸망할 때까지 존재하였다고 주장하는 학자도 있기 때문이다. 서로마와 달리 비잔티움 제국이 게르만의 침입을 막아낼 수 있었던 배경을 비교할 수 있도록 한다. 즉, 지리적 요인, 효율적인 방어 체제와 이를 가능하게 한 충실한 국가 재정, 농업 및 농민에 대한 정책 등에서 서로마 제국과 달랐던 점을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

6. 르네상스

14~16세기 서유럽에서 일어난 물질적 변화와 함께, 르네상스 시대에 형성된 인간 중심의 합리적 세계관은 근대 의식의 성장을 대변한다. 그런데 르네상스를 '근대의 시작'으로 설정하는 데에는 논란이 있다. 르네상스 문화를 중세의 연속선상에서 나온 결과물로 이해하는 학설이 있으며, 르네상스의 근대성을 지나치게 강조하는 것을 지양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그러므로 중세에서 르네상스로의 지속과 변화에 유념하면서 갑자기 비약적으로 근대가 도래하였다는 식으로 서술하지 않도록 유의한다.

지역 및 시기에 따라 다른 양상을 보이는 르네상스의 면모를 다양한 관점에서 다루면서 이 시대의 변화상에 대하여 균형 잡힌 이해를 이끌어 내도록 유의한다.

7. 굽타 왕조의 힌두 문화

굽타 시대는 불교가 후퇴하고 토속 신앙, 불교, 브라만교가 융합한 힌두 문화가 완성된 시기임에 유의한다. 굽타 왕조의 정치·사회가 중앙아시아 혹은 동남아시아와 부단한 교류를 통해 변화·발전하였음을 유의할 필요가 있다. 이는 인도 지역이 폐쇄적이지 않았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힌두교가 불교를 흡수해가는 배경과 함께 그것이 신분적으로 엄격한 카스

트제와 어떠한 방식으로 결합되었는지 인식할 수 있도록 한다.

8. 불교의 유행과 동아시아 전파

한대에 불교가 중국에 전래되었으나 초기에는 크게 유행하지 못하였다. 불교 경전의 번역 사업이 점차 진행되면서 불교에 대한 이해가 깊어졌고, 직접 불경을 구해 오는 구법 활동이 전개되면서 남북조 시기에는 불교가 널리 확산된 과정을 이해하도록 한다. 불교가 4세기 초 이후에 유행할 수 있었던 데에는 북방 민족 통치자들의 종교·정치적 성향도 함께 작용한 점에 유의한다. 당시 불교는 국가와 민족을 넘어서는 가치관으로 작용한 측면이 있었고, 불교를 매개로 인적 교류가 활발하게 진행되었던 사실도 주목해야 할 것이다. 신라와 일본 승려들의 유학 활동은 인적 교류의 대표적인 사례로 들 수 있다.

9. 일본 고대 국가 형성과 문화

'천황' 호칭은 논란의 여지가 있으므로 사용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일본의 '천황'은 국왕과는 다른 의미를 갖는 용어임을 염두에 두고, '천황'이라는 용어를 사용할 때는 당시 동아시아의 국제 질서 속에서 일본이 차지한 위치와 그 역사적 맥락을 함께 서술함으로써 균형 잡힌 이해를 도모한다.

일본에서는 8세기까지 '당풍'이라 하여 외래문화가 유행한 시기가 있었는데, '당풍'은 중국 문화만을 지칭하는 것은 아니며, 한반도에서 도입된 선진 문화까지 포함한다는 사실에 유의한다.

Ⅲ. 교류의 확대와 전통 사회의 발전

1. 근대 이전의 동서 교류

근대 이전에는 여러 지역이 각기 고유한 문명을 모태로 독자적으로 발전해 왔다고 보기도 하지만, 반드시 단절되었던 것만은 아니다. 지역 세계를 넘는 장거리 교역이 지속적으로 존재하였고, 교역을 통해 문화적 자극이 전해지기도 하였다. 근대 이전 유라시아 지역에서 전개된 지속적인 상품 교역과 문화 교류에 대해 이해한다.

다만, 문화 전파론의 입장에서 교류에 지나치게 비중을 두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불교의 동아시아 전파나 중국의 4대 발명이 유럽에 전파된 경우에서 보듯이, 지극히 점진적이고 간접적인 변화였음에 유의하여 서술한다. 아울러 유라시아 남북에 위치한 초원과 농경 지역 간에 이루어진 상품 및 문화 교류가 동서 교류 이상으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었다는 점에 주의한다.

2. 송대의 경제 발전

송은 농업 생산력이 증대하고 상업이 발전하는 등 경제가 크게 발달한 국가로 평가할 수 있다. 정치적 기능이 강하였던 종래 도시와 달리, 송대에는 각지에 상업 도시들이 출현한 변화에 주목한다. 당대(唐代)까지 존재한 시장에 대한 제약(市制)이 사라지고 개방적인 시가지가 형성되면서 도시의 분위기가 크게 바뀌었다. 송대에 나타난 서민적 경향의 문화가 이후 시기까지 이어진 점에 유의한다.

도시에는 상인들과 수공업자들의 동업 조합도 성행하고 있었다. 상인과 수공업자의 조합이 경제 발전에 기여한 측면과 함께, 자유로운 경제 활동을 저해하는 측면도 아울러 가지고 있음에 유의한다. 또 송대에는 국가 권력이 지폐를 발행함으로써 경제가 비약적으로 발전함에 따라 화폐가 부족해지는 상황을 타개하려 한 점도 유의한다.

3. 북방 민족과 요, 금 왕조

유목 민족은 뛰어난 기동성을 바탕으로, 민족의 통합이 이루어지면 주변의 오아시스 및 농경 지역을 압박하는 특징이 있다. 송대를 전후하여 이러한 북방민족이 정복 왕조를 수립하게 되는데 요, 금이 대표적이다.

요를 수립한 거란족은 북송을 압박하면서 화북의 일부를 병합하고 화평의 대가로 세폐를 받아 경제적인 호황을 누렸다. 요는 유목민족과 농경민족을 분리하여 이원화된 통치 정책을 시행하였다.

금을 수립한 여진족은 요와 북송을 멸망시켜 화북 일대까지 지배하는 정복왕조로 발전하였다. 여진족은 중국 문화에 대한 수용 정도가 다른 정복 왕조들에 비해 높았다.

4. 몽골 제국

몽골은 중국, 중앙아시아, 서아시아, 동유럽에 걸친 대제국을 건설하였다. 몽골의 팽창 원인을 군사적 전술과 전략 면에서 유목 민족의 우월성과 함께, 중앙유라시아의 지리・생태적 환경, 정치・경제적 상황과 연동하여 이해할 수 있도록 한다.

1260년 이후, 원과 4한국(汗國)으로 정치적 분열이 고착되었다는 기존 견해와 달리, 원을 중심으로 하는 느슨한 정치적 결합을 통해 제국의 틀을 유지하였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특히, 우구데이 한국을 다른 한국과 같은 시기로 오인하여 지도상에 표기하는 오류는 수정할 필요가 있다. 몽골 제국이 상호 단절되어 있던 지역 세계들을 정치・문화・경제적으로 연결하는 계기를 열었다는 점에서 그 세계사적 의미에 주목한다.

5. 티무르 제국과 오스만 제국

티무르 제국은 유목 문화의 전통을 계승하면서 정주민의 경제력과 이슬람 문화를 융합해 나감으로써 현대 중앙아시아의 전통 문화를 형성한 점을 염두에 두고 서술한다. 차가타이 한국이 멸망한 이후에도 몽골 제국의 유산이 티무르 제국에 계승된 점을 유목 사회의 지속과 변화의 관점에서 인식할 수 있도록 한다.

오스만 제국은 이스탄불을 중심으로 상업을 발전시켰다. 오스만 제국에서 이슬람 문화,

비잔티움 문화, 이란 문화, 튀르크 문화 등 동서 문화가 공존하였던 역사적 사실을 발견할 수 있다.

티무르 제국, 무굴 제국, 오스만 제국에는 유목 문화의 전통이 저변에 흐르고 있었으며, 전근대 유라시아의 국제 관계는 유목 사회와 농경 사회가 상호 공존·경쟁하며 발전해 온 것임을 유의하여 서술한다.

6. 무굴 제국

'무굴'은 '몽골인'에서 기원한 것처럼, 무굴 제국이 중앙아시아와 역사·지리적으로 연계되었던 점에 유의한다. 무굴 제국의 종교 정책을 서술할 때, 악바르 대제는 이슬람교와 힌두교의 화해 정책을 통해 인도의 통일성을 유지할 수 있었던 반면, 18세기 전후 철저한 이슬람교도 중심의 국가정책이 제국의 결속력을 약화시키는 결과까지 변천된 과정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한다.

무굴 제국에서는 왕족과 귀족이 상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등 상업과 대외 무역이 크게 번창하였다. 15세기 말 이후 포르투갈, 영국, 프랑스 등이 인도에 진출하는 계기와 과정을 이해하고 주요 상품의 물적 흐름을 파악할 필요가 있다. 인도양을 중심으로 하는 교역 구조와 변화상을 이해함으로써 세계 무역의 변화를 탐구할 필요가 있다.

7. 유럽의 신항로 개척

고대 이래 서구인은 인도·중국으로 대표되는 동방의 상품을 구하기 위해 동방무역로 탐색을 지속하였다. 유럽 국가들이 신항로 개척에 나서면서 국제 무역이 크게 확대되었다는 인식이 일반적이다. 15세기말 유럽의 신항로 개척은 8세기 이래 이용된 아프로·유라시아 무역로를 우회하는 새로운 항로를 찾은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근대 지리상의 발견' 또는 '유럽 세계의 확대' 라는 관점을 수정할 필요가 있다.

8. 유럽의 절대 왕정

절대 왕정은 중세 봉건 세력과, 새롭게 성장하는 상인 세력 간의 균형위에서 유지될 수 있었다. 국왕의 강력한 왕권 행사는 적대적인 사회 세력 사이에서 대립과 균형의 추를 조정함으로써 가능한 것으로 인식할 수 있도록 한다. 국왕의 명령을 즉각적으로 집행하는 관리와 상비군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비용의 일부는 특권 상인들이 부담하였다. 이 과정에서 권력과 경제의 유착 관계가 정착되었으며, 절대주의 국가들이 실물 경제에 직접 간섭하는 중상주의 정책을 추진하였던 배경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한다. 또한 절대 왕정 시대에 민족 국가의 토대가 마련되었음을 유의하여 서술한다.

9. 명·청 시대의 정치와 사회

명·청은 근대로 이어지는 시대에 존재했던 국가로서, 이 시기에 발생한 중요한 변화들

은 근대 중국의 역사 전개에 많은 영향을 미쳤다. 따라서 명·청 시대의 정치·사회상과 그 사회 내부에서 나타난 변화상을 온전히 이해하는 것은 전통 질서에 대한 심화된 이해와 근대적 변화에 대한 균형 있는 이해를 위해 필요하다.

한국사와 관련지어, 명·청·조선 간의 국제관계에 주목하는 것도 좋을 것이다.

10. 명·청 시대의 경제 발전과 동아시아 교역

명·청대에는 그동안의 연구 성과를 통해 서구의 충격 이전에 이미 상당한 수준의 경제적 활력과 변화의 존재가 확인이 되었다. 최근에는 물자의 유통을 포함한 동아시아 지역의 경제 활동의 존재에 주목하고, 근대 이후 동아시아 지역경제와 연속성을 강조하는 연구들이 나오고 있다. 이러한 점을 염두에 두고 명·청 시대의 경제적 번영을 서술할 때, 국내적인 면과 국외적인 면을 함께 고려하도록 한다.

18세기까지 중국의 경제력이 상당한 수준에 이르렀다는 실증적 연구를 통해, 중국의 전근대 경제를 적극적으로 평가하는 견해가 나타나고 있다. 이 점을 고려할 때 동아시아의 발전 내지 산업화의 과정을 서양과 비교하는 경우, 예컨대 영국의 경험이 정상적인 것이고 그 외의 것은 예외적인 것으로 서술하는 방식은 지양해야 한다. 각국이 처한 역사적 조건의 차이에 따라 그 발전의 경로와 속도가 달리 나타나는 점을 강조할 필요가 있다.

11. 에도 막부의 성립과 발전

막부의 쇄국 정책은 외부를 향한 창구를 완전히 폐쇄하는 의미가 아니다. 이는 가톨릭의 교세 확장에 대응하고 나가사키 항을 통해 대외 관계를 통제하겠다는 일종의 관리무역 체제로서, 실제 200년간 에도 막부는 조선과 류큐 등과도 관계를 지속했음을 주지시킬 필요가 있다. 또한 쇄국 정책에도 불구하고, 서양의 근대 과학이 꾸준히 소개되어 발전한 난학은 훗날 일본이 서양 문물을 수용하는 큰 밑거름이 되었음을 상기할 때, 쇄국 정책 부분에 대한 서술에 주의를 요한다.

Ⅳ. 산업화와 국민 국가 형성

1. 자본주의의 발전과 산업 혁명

자본주의는 16세기 이후 세계로 확산되었으며, 이러한 과정은 산업 혁명의 전파와 깊은 관련이 있다. 오늘날에는 세계가 자본주의와 산업화의 영향 아래 놓이게 되었다. 그러므로 자본주의와 산업화라는 주제는 출현과 발전, 정착 그리고 확산, 나아가 그 영향까지 종합적으로 다룰 필요가 있다. 이에 대한 인식은 근대 서유럽 역사의 변화 과정을 이해할 뿐만 아니라, 오늘날 세계인의 삶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주제라는 점에서 중요하기 때문이다.

2. 시민 혁명과 시민 사회

근대 사회의 확립을 자본주의 확산 및 시민 사회의 정착과 관련지어 인식할 수 있도록 배려한다. 자유와 평등이 포함된 인권 이념은 시민 혁명을 불러일으킨 중요한 사상이었으며, 이로부터 시민 사회가 발전했음을 고려한다. 그러나 시민 혁명의 이상을 실현하는 데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었음을 지적할 필요가 있다.

3. 자유주의와 민족주의

자본주의와 산업화가 시민 사회의 구조적·물질적 토대를 마련하였다면, 자유주의와 민족주의는 이념적 기초를 제공하였다고 볼 수 있다. 19세기 서구 자유주의는 표면상 모든 인간의 자유와 평등을 내세우며 미국과 라틴 아메리카까지 번져 나가 식민 상태를 종식시키는 무기로 작동하였다. 당시 자유주의는 부르주아지 시민 계급에게 특히 유리하게 작용하였음을 유념해야 한다. 하지만 자유주의 이념 아래 영국은 선거권 확대 운동을 통하여 더 많은 대중이 참정권을 얻었다.

이탈리아와 독일은 민족주의 기치 아래 통일된 민족 국가를 수립할 수 있었다. 라틴 아메리카의 독립 과정을 서술할 경우, 식민지 경제가 서구 제국주의 국가 경제에 종속되었음과 더불어, 원주민과 유럽인의 혼혈이 식민 지배 지속에 기여하였음을 고려해야 한다. 그러나 동경의 대상인 본국과 억압된 식민지 현실 사이의 괴리가 독립 운동을 자극하는 촉매제였음을 주목한다.

4. 사회주의

자본주의의 구조적 모순이 심화됨에 따라 19세기 유럽에서 사회주의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었다. 공상적 사회주의 이론을 비판하면서 마르크스는 과학적 사회주의를 주장하였다. 마르크스의 이념은 사회주의 혁명이 발생하는 데 큰 영향을 끼쳤다.

사회주의가 등장하면서 자본주의의 문제점이 부각되자, 자본주의에도 변화가 일어났다. 자본주의는 공익을 위한 간섭의 수용이라는 측면에서 시장의 자유라는 대원칙을 수정하였음을 고려한다.

5. 제국주의

19세기 후반에 나타난 제국주의는 과거의 정복 식민 지배의 양상과 달리, 고도화된 자본주의 단계, 즉 독점 자본주의 체제 및 잉여 자본의 축적과 관련이 있다. 또한 민족주의 및 애국주의의 고양과도 관련이 있다. 나아가 제국주의는 생물학적 진화론이 사회 진화론으로 변용된 것과도 관계가 있다. 제국주의 국가가 식민지 쟁탈에 열중한 이유는 원료와 시장의 확보라는 경제적 필요와 함께, 국가 간 세력 균형이라는 외교 전략적 고려, 서양의 문화적·인종적 우월 의식에서 비롯된 비서양인에 대한 문명화의 사명감이 동시에 작용하였다는 점도 함께 서술할 필요가 있다.

Ⅴ. 아시아·아프리카 민족 운동과 근대 국가 수립 운동

1. 서양의 충격과 개항

서양의 충격 이전에 아시아와 아프리카에 나타난 사회 질서의 해체와 새로운 변화의 흐름에 대해서 간단히 언급한다. 적어도 서양의 침략 이전부터 이들 사회 내부에서 변화의 모습이 나타나고 있었음을 지적할 필요가 있다. 서구 열강의 침략성을 불평등 조약의 의미를 통해서 파악할 수 있도록 한다. 개항을 둘러싼 동아시아 3국의 상황에 대해서 상호 비교하는 것도 고려할 만하다.

2. 서아시아·아프리카 각국의 근대 국가 수립 운동

오스만 제국이 근대적 개혁에 실패하고 러시아·영국 등 열강의 침략과 간섭 속에 해체되었다. 이는 현대 동유럽과 서아시아에 새로운 국경을 형성시키는 계기가 된 사건으로 평가할 수 있다. 한편, 서아시아의 국가가 유럽을 모델로 삼아 새로운 국체를 모색하는 과정을 파악할 수 있도록 한다. 오스만 제국의 지배를 받던 북아프리카와 서아시아는 18세기 이후 영국, 프랑스, 러시아, 독일 등의 침략을 겪었으며, 이에 대항하여 민족 운동을 전개한 과정을 서술한다.

3. 중국의 근대화 운동

태평천국 운동, 양무운동, 변법운동, 의화단 운동, 신해혁명으로 이어지는 정치·사회적 변동을 상호 연관성 속에서 서술한다. 대체로 중국의 근대화 운동을 서술할 때 보수와 진보, 개혁과 혁명 간의 차이와 갈등을 부각시키는 경향이 있다. 이들 세력이 목표에 이르는 수단과 전망에서 양자 간의 차이가 분명히 있지만, 그들이 지향하는 공통된 목표와 상호 영향의 측면을 아울러 강조할 필요가 있다. 또한 개혁 운동과 혁명 운동의 한계와 함께, 그러한 시대 상황 속에서 성취한 나름의 역할과 의의에 대해 적절하게 강조한다.

4. 메이지 유신

일반적으로 일본은 신속한 대외 개방과 근대적 개혁으로 아시아에서 유일하게 근대화에 성공하였다는 식의 단순 비교론이 널리 통용되고 있다. 일본 근대화를 제대로 인식하기 위해서도 메이지 유신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필요하다. 일본이 성취한 근대적 개혁의 성격을 정확하게 인식함과 동시에, 근대화의 성공을 위해 이면에서 치러야 했던 비용과 희생, 예를 들어 국내의 불균형 발전과 대외 침략도 함께 주목하도록 한다.

Ⅵ. 현대 세계의 전개

1. 제1차 세계 대전

19세기 말 이래 서구 제국주의 열강 간의 치열한 패권 경쟁은 결국 전쟁을 초래하였다. 개별 국가 간 힘겨루기에서 한걸음 더 나아가, 정치·경제적 이해가 상충하는 민족 국가 집단 간의 대결은 더 길고, 더 참혹한 전쟁을 낳고 전대미문의 전쟁 피해를 유발하였다. 무엇을 위한 전쟁이었고 누구에게 영광과 이익이 돌아가는 전쟁이었는가를 고려하면, 승전국이나 패전국을 불문하고 가장 큰 고통을 겪어야 하였던 사람들은 두 진영의 일반 국민이었음에 유의한다. 또한 전쟁을 거치며 미국과 일본이 새로운 강대국으로 성장한 사실을 주목한다.

2. 러시아 혁명

19세기 중엽 러시아는 봉건적 잔재가 여전하였다. 근대화 요구에 직면하면서 비로소 로마노프 왕조는 위로부터 산업화·근대화를 추진하게 되었다. 그러나 전제 군주의 피상적인 개혁 시도는 오히려 러시아가 안고 있는 총체적인 문제를 극명하게 드러낸 점을 염두에 두고 서술한다.

레닌을 중심으로 한 볼셰비키 세력이 전제 왕정의 폐지와 사회주의 국가의 건설을 위해 사회주의 정권을 수립한 과정을 이해한다. 소비에트 정권은 사회주의 경제 체제를 확립하였으나, 계획 경제가 구성원의 적극성·창의성을 이끌어 내는 데 적지 않은 문제점을 노출하였다는 사실에 유의한다.

3. 파시즘

파시즘은 국가와 민족공동체를 살아있는 유기체로 보고 이를 절대적 가치로 내세워 모든 개인이 사사로운 이해관계를 버리고 국가와 민족공동체에 헌신할 것을 요구하였다. 그리고 사회주의뿐만 아니라 합리적 이념과 개인의 자유와 인권의 가치를 적대시하고 탄압하였다. 무솔리니와 프랑코, 그리고 히틀러로 상징되는 파시즘 체제는 전체주의적 지배를 밑으로부터의 대중의 지지를 통해 정당화 시키려고 한 점에 유의한다. 특히 나치즘은 인종주의에 입각하여 민족 공동체의 본질을 인종 공동체로 보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4. 민족 운동의 전개와 중국 혁명

중화민국 수립 이후 1949년 중화 인민 공화국 성립까지 혁명 운동과 반제 민족 운동의 전개 과정을 이해하도록 한다. 이 기간 동안 반일 민족 운동으로서 5·4운동의 전개, 국민 혁명의 전개 및 굴절, 항일전쟁과 전후 국·공 내전 등이 전개되었음에 유의한다. 다양한 정치 집단의 혁명 운동과 반제 민족 운동도 중국의 근대 국민 국가 건설과정의 일부로 파악될 수 있다.

5. 일본 군국주의의 대두와 침략 전쟁

일본은 청·일 전쟁, 러·일 전쟁, 만주 사변, 중·일 전쟁으로 이어지는 일련의 과정을 거치면서 군국주의의 길로 나아갔다. '군국주의와 전쟁의 길'을 추구한 20세기 전반 일본의 불행한 역정은 결국 제2차 세계 대전의 패전으로 귀결되었고, 한국과 중국을 비롯한 주변 아시아 여러 나라에 큰 피해를 주었음을 이해하도록 한다. 전범 재판과 샌프란시스코 강화 조약을 통해 전후 처리가 이루어졌음을 이해한다. 일본 현대사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서술할 필요가 있다.

6. 냉전 체제

제2차 세계 대전 후 세계 질서를 정립시키기 위해 국제 연합이 탄생하였다. 국제 연합 체제 하에서 자본주의 체제와 공산주의 체제는 서로 날카로운 대립 구도를 만들었다. 이러한 대립에서 세계는 미국과 소련을 중심으로 양대 진영으로 나뉘어졌다. 적대 진영의 침략을 대비한다는 명목 아래, 두 강대국은 자신들의 이익을 위하여 양대 진영에 속한 국가들에게 영향력을 행사하였음을 인식시킨다.

냉전 체제 아래에서 한국을 비롯한 아시아 여러 지역에서 열전이 전개되었다는 사실과, 냉전 체제 아래에서 소외되었던 아시아·아프리카 등의 여러 나라들이 결속을 다져 제3세계를 구성하게 된 점도 유의한다.

7. 현대의 아시아

오늘날 현대 아시아의 여러 나라를 다룬다. 특히 우리나라와 긴밀한 관련을 가진 중국과 일본에 주목한다. 중국은 '사회주의 국가건설' 과정에서의 시행착오와 개혁·개방 이후 '사회주의 시장 경제'로 대표되는 현대 중국의 변화상을 설명한다. 일본은 패전 이후 경제의 발전을 이룩하면서 세계 속에서 자국의 역할을 증대시키고자 힘쓰고 있음을 서술한다.

8. 사회주의 체제의 해체

20세기 중후반 이후 사회주의 국가들은 국가 운영의 비효율성 때문에 경제위기를 공통적으로 경험하였음을 인식한다. 냉전이 완화되고, 잠복되어 있던 체제 내적 문제가 표출되면서 사회주의 체제가 무너지게 되었음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한다.

9. 아프리카의 독립과 변화

아프리카에서 여러 국가가 독립한 후 내란이 빈번히 발생하는 등 혼란이 연속되었다. 이는 인종주의, 종족 문제, 빈곤과 기아, 인구 과잉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나타난 결과였다. 이와 같은 상황이 발생한 근본적인 원인을 유럽 국가의 아프리카 분할 및 통치 방식과 연계하여 서술하는 것이 아프리카의 상황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한편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는 1994년 모든 인종이 참여하는 선거에서 만델라가 흑인으

로서는 최초로 대통령에 선출되면서 사회 통합의 성공적인 사례로 기록된 점에 유의한다.

10. 20세기의 라틴 아메리카와 오세아니아

라틴 아메리카와 오세아니아 지역은 우리와 관련이 깊은 사실을 중심으로 접근하는 것이 적절하다. 우리 교민들은 20세기 초부터 멕시코와 쿠바에 이주하였고, 칠레는 2003년 우리와 자유 무역 협정을 체결하여 우리나라가 라틴 아메리카에 진출하기 위한 교두보 역할을 하고 있다. 오스트레일리아와 뉴질랜드는 6·25 전쟁 때 유엔군으로 한국에 참전하였으며, 현재 우리 교민들이 많이 거주하고 있는 국가들이다.